

귀 국 보 고 서

파견대학	필리핀 산호세 대학교
파견기간	2018.09.02~ 2018.12.15
프로그램	학기제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모두 담당하시는 매니저님이 준비해주십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여름 옷과 후드 집업이나 가디건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는 굉장히 덥고 강의실은 매우 추워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감기약, 지사제 등의 약을 준비해가시면 좋습니다. 특히 감기약은 현지에서도 팔지만 미리 한국에서 2-3통 구입하여 가면 좋습니다. 감기 매우 자주 걸리고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110V 변환기 1개에서 2개 그리고 멀티탭 하나 챙겨가시면 됩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영어를 주로 쓰지만 발음 같은 경우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산호세 부설 대학에 있는 CPILS 선생님들은 대부분 발음이 좋습니다. 수업시간 외에 필리핀 언어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가드나 housekeeper분 들께 영어로 물어보면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주십니다. 확실히 현지어를 사용할 경우 현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문화 면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한국 사람 좋아해서 길 지나다니면 연예인 된 느낌입니다. 여기저기서 인사해주십니다. 동시에 구걸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절대 돈 주지 마세요. 물가는 엄청 저렴합니다.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제품 찾아 다시면 한국 물가랑 비슷하거나 더 비싸요. 현지 음식점 이용하시면 맛있는데도 많고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선택 이유: 저는 추가로 급하게 교환학생 신청한 케이스라 영어권이 산호세대학교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등록금도 저렴했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면 필리핀에 가서 먼저 스파르타로 교육받는 것이 더 좋다 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공항에서는 CPILS라는 어학원 개념의 부설대학교 시설에서 픽업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숙사형 캠퍼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수강신청은 한국학생은 Sparta 과정만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CPILS에서 이루어지는데 매일 아침8시에 수업 시작하여 밤9시30분에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1분 늦으면 지각처리 되고 벌점1점, 10분 늦으면 결석 처리되어 벌점2점입니다. 벌점 10점 받을 시에 기숙사 퇴교입니다. 또한 출석률 95%이상 채워야 수료증 나오므로 특히 출석률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산호세대학교에 가서 2-3간 정도 수업 고 버디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쉼어룸 등)

-기숙사는 2인1실을 사용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외국인과 룸메이트가 되어 영어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방은 오피스에 말씀하시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뜨거운 물 잘나오고 한국에 비하여 열악하긴 하지만 생활하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방에 문제 있으면 housekeeper 분들 오셔서 수리해주셔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였습니다. 가끔 배드버그 있는 방이 있는데 바로 방 변경하셔야 합니다. 저는 소독하고 이러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계속 물려서 결국 방 변경하고 그 뒤에는 안 물렸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랑 개미는 자주 출몰하므로 처음에는 놀라지만 점점 적응됩니다. 방 문 잘 닫으셔야 쥐도 안 들어와요.

나-5. 교내·외 활동

-교내에서는 English contest 라는 대회가 제가 머물 때 열렸었는데 선생님들끼리 팀을 짜고 난 뒤에 player인 학생들을 모집하십니다. 저는 1인 연극 참여하였는데 선생님들이 발음, 억양 등 고쳐주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 됐습니다. 이 대회는 단어 맞추기, 퀴즈, 프레젠테이션, 1인 연극이 있는데 프레젠테이션과 1인 연극이 하이라이트이자 영어 실력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무래도 이 두 분야는 1인 참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엄청 많습니다. 두 분야 모두 한국인 1명 있었는데 둘 다 충북대 학생이어서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교외 활동 같은 경우 공장 방문과 봉사활동 2번이 있는데요. 다른 대학교 교환학생들은 필수였지만 저희 학교는 선택이었습니다. 꼭 참여하세요! 해외에서 봉사하는 일이 결코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 봉사 활동 중 1번은 쌀 나눠주는 일이었고 1번은 나무 심는 활동이었는데 하고 나서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먼저 성적 관련하여서는 주말 제외 모든 것이 성적에 반영됩니다. 출석률, 수업태도, 과제 등등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스케줄 또한 엄청 타이트하여서 몸도 지치지만 무조건 수업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3시간 정도 산호세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 3시간을 수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성적에 50퍼센트 반영된

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학기 말쯤 알게 됩니다.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중요)

일상생활은 치안 안 좋다는 말이 많았는데 총소리 들은 적 없습니다. 구걸하시는 분은 많지만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몇 명 잃어버렸었는데 다 찾았습니다. 절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현지인분들 말에 의하면 대통령이 바뀌고 난 뒤 치안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로컬 시장 같이 붐비는 곳 가시면 가방 꼭 붙잡고 다니시고 목걸이, 반지 등 장신구는 제거하고 다녀주세요.

음식은 필리핀 디저트 강국입니다. 진짜 맛있고 싸요. 필리핀 음식 특이한 곳도 많지만 한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음식 많이 찾는 친구들이었는데 나중에는 필리핀 현지 맛집 몇 군데 찾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 제품, 음식 진짜 비싸요. 저는 현지 음식 좋아하여서 잘 먹고 왔습니다. ‘망이 나살’이라고 유명한 밥집 있는데 꼭 이용하세요.

교통은 필리핀 대중교통 ‘지프니’라고 단돈 7페소, 140원정도 하는 대중교통 있는데 외국인이 타기에는 조금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치안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돌아오기 1달 전부터 자주 이용했는데 조금 더 빨리 이용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 현지인이 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랩’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택시를 잡으세요. 바가지 요금 피하고 택시 기사 분들 길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택시 요금은 기본 40페소, 800원에서 시작하면 1분당 2페소, 40페소로 분 당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그랩 이용 시 그랩 요금 추가로 600원 정도 부담합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주말을 현명하게 이용하세요. 놀 시간이 주말밖에 없습니다. 평일엔 외출금지입니다.

1. 반타얀 아일랜드: 세부가 속한 지역에서 가장 물이 깨끗하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거의 없고 정말 자연으로 휴양 가는 느낌입니다. 다만 가는 데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리므로 필리핀 휴일을 이용하여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카이 다이빙 같은 액티비티 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호핑아일랜드(섬투어), 스노쿨링 같은 경우 어디를 가시던 하실 수 있습니다.
2. 카모테스 아일랜드: 절벽 다이빙으로 유명합니다. 진짜 무서운데 인생샷 찍으려고 다이빙 대에만 앉아봤습니다. 그리고 밤에 무수히 많은 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오슬롭&카와산 폭포: 오슬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래상어와 함께 수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쩌다 배에서 내려가다가 고래상어 밟았는데 다행히 물지는 않았습니다. 고래상어는 크기도 10m 정도 되는데 먼저 크기에 압도 당하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카와산 폭포에서는 타잔처럼 줄 타다가 물에 빠질 수 있고 높이에 따라 다이빙 스팟이 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포기하였지만 스릴을 좋아하신다면 강력 추천 드립니다.
4. 보홀 아일랜드: CPILS에서 10-15분 정도 걸어가시면 항구가 있는데 여기서 배타시면 바로 보홀 갈 수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소요되며 4륜자동차, 짚라인, 케이블카, 필리핀 원숭이인 타쉬어 관람, 스노쿨링, 돌고래 떼 관람, 거북이와 수영하기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 드리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물 굉장히 맑고 관광객들도 늘어나는 추세임으로 먹거리나 쇼핑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추천 드리자면 '말리나원 리조트'라고 1박에 2만원정도 하는 리조트가 있는데 작년에 건축하여 시설 좋고 유명한 비치인 '알로나 비치'와도 가깝습니다.
5. 막탄 아일랜드: 막탄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러 갔습니다. 물이 맑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바다는 이뽁니다. 원하시면 밤에 나이트 스쿠버 다이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크고 이쁜 리조트들이 모여있고 편의시설 또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리조트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간단히 Bar만 이용하시고 나와도 됩니다. 기숙사에서 막탄 아일랜드까지 택시 이용 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영어 실력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 대신 타이트한 스케줄 견디셔야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하고 기후가 한국과 달라 감기 매우 자주 걸립니다. 감기약과 비타민제 많이 챙겨가세요. 그리고 필리핀 선생님들께 예의를 갖추주세요. 필리핀 학교 시스템상 대학교 졸업을 한국보다 빨리 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 나이가 저희와 비슷하거나 어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이런 점을 이용하여 필리핀 선생님들께 무례하게 행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유독 한국 분들이 많이 그러셔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창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교환학생입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즐거운 학교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1. 대학교 버디



2. 봉사활동



3. classmate



4. 영어스피킹대회

